

문제 1

□ 출제 의도

-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약·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 제시문 [가]는 실 뭉치의 예를 통하여, 중심이란 항상 가변적이어서 삶의 궁극적인 중심이 바로 자신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논한 글이다. 따라서 주제를 드러내는 개념어는 ‘중심’이다.
- 제시문 [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꿈이나 욕망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시세에 영합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의 입장이 적용된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는 ‘만족’이다.
- 제시문 [다]는 나무의 예를 들어, 삶의 중심을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공정하게 동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공감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자료 출처

- [가]: 안소영, 「이 세상의 중심은 나」, 유병환 외(2012), 『고등학교 문학 II』, 307쪽.
- [나]: 권근, 「어촌기(漁村記)」, 김병권 외(2011), 『고등학교 국어(상)』, 30~31쪽.
- [다]: 이양하, 「나무」, 김종철 외(2011), 『고등학교 국어(상)』, 50~51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개념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 (5점)

◆ 채점 기준

-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개념어)로 ‘중심’을 찾아내야 함
- ‘실 뭉치’는 주제를 드러내는 개념어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님

-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정확히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10점)

◆ 채점 기준

- 삶의 중심이란 매우 가변적인 것이므로 무엇보다 우선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300자 내외로 요약하여야 함

2)번 문항

- [가]에 제시된 입장이 적용된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 (5점)

◆ 채점 기준

- 내 삶의 기준과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결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추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주체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결과는 자신의 처지를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답은 ‘만족’ 이 됨

○ [가]의 입장에서 [다]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10점)

◆ 채점 기준

- [가]가 자신을 삶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한 글이라면, [다]에서는 자신과 동시에 타자도 주체적 존재로 인정함으로써 상호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줌. 이러한 내용을 300자 내외로 요약하여야 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개념어는 ‘중심’이다. 이 글은 실 뭉치의 예를 들어 중심이라는 것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신분이나 나라의 문제도 보는 입장에 따라 중심과 변두리의 개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의 필자는 서자의 신분으로 변두리 자그마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 삶은 더욱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번) 예시 답안

[가]에 제시된 입장은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필자는 출세, 부귀, 영화, 공명 등 일반적인 잣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중심에 둔다. 그리하여 시세에 영합하지 않고 어부가 되는 꿈을 꾸었으며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입장이 적용된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는 ‘만족’이다. [다]는 [가]에서 말한 바와 같이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는 스스로가 중심임을 타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함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나무의 예를 통해 보여준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개인 생활과 법, 국가와 윤리에 대한 가치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개인(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정당성에 대해 묻고 있다.
- 제시문 [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유행과 관련하여, 국가가 공익을 근거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격리 조치를 취한 사례이다.
- 제시문 [나]는 국가를 공통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이념 공동체로 보고, 사회 유지에 필요한 공통의 도덕적 확신을 법으로 강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시문 [다]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A씨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이다.
- 국가는 개인(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근거로는 공공복리, 질서유지, 안전보장 등이 거론된다. 또한 국가는 도덕이나 윤리, 선량한 풍속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도덕을 근거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그것이 바람직한가, 만약 제한한다면 그 범위와 정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또한 국가가 도덕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경우 판단의 주체와 기준, 범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수험생의 이해와 논리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동아일보, 2015.6.10. 외 <http://www.mers.go.kr/> 참조.
- [나]: 패트릭 데블린(1959), 『도덕의 강제』.
- [다]: 문용린 외(2011), 『고등학교 도덕』, 136쪽.

□ 평가 기준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함 (10점)

◆ 채점 기준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를 모두 밝혔으면 10점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를 하나만 밝혔으면 5점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를 하나도 밝히지 못했으면 0점

- 제시문 [가]의 중심 내용 : 국가의 목적은 공익의 보호이며, 따라서 국가는 공익을 근거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제시문 [나]의 중심 내용 : 사회는 공통의 합의로 구성되었고 합의가 소멸한다면 그 사회는 해체될 것이므로, 개인이 공통의 도덕에 위배되는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사회의 완전성을 위하여 법적 강제가 가능하다.

○ 제시문 [다]의 국가의 결정에 대하여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는가를 평가함 (20점)

◆ 채점 기준

- 국가의 결정에 대하여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함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모두 활용하였으면 20점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중 하나만 활용하였으면 15점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활용하지 않았으면 1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제시문 [가]에 의하면 국가는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국가를 이념 공동체로 보고,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개인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 홍보 대사를 맡고 있던 A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가는 이것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입국을 거부하였다. [가]에 의하면 A씨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나]에 의하면 A씨는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였다. 이는 국가의 완전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국가의 이러한 결정은 공익을 침해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 판단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및 경제 교과의 ‘사회 계층과 불평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가상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 제시문 [가]는 사회 불평등 현상의 개념과 원인을 설명한 것이다.
- 제시문 [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을 설명한 것이다.
- 제시문 [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상 국가의 직업별 연간 소득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직업 특성 및 사회 계층 구조 형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가상 국가의 직업별 인구 구성 비율, 연간 소득(직업별 연간 소득과 다른 직업과의 상대치) 등을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 제시문 [라]는 [나]에서 제시한 기능론적 관점에 근거한 주장이다. 일의 중요도가 낮고 특별한 훈련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에 높은 소득을 보장해 준다면, 의사와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제시문 [마]는 [나]에서 제시한 갈등론적 관점에 근거한 주장이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소수자 우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집단 간 갈등,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해당 국가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할 경우에는 직업의 특성(일반적으로 전문직은 단순 노무직보다 자격 취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투자됨), 직업별 인구 구성 비율(예컨대, <A>국은 전문직이 10%, <B>국은 5%), 연간 소득 격차(<A>국의 경우, 전문직과 단순 노무직은 4,600만원의 연간 소득 격차 발생, 전문직은 단순 노무직 노동자의 328.6%에 해당하는 소득. <B>국의 경우, 전문직과 단순 노무직은 1,200만원의 연간 소득 격차 발생, 전문직은 단순 노무직 노동자의 136.4% 소득), 사회 계층 구조(<A>국은 중산층이 많은 다이아몬드형의 계층 구조, <B>국은 낮은 피라미드형의 구조이지만 하층이 비교적 안정적인 계층 구조) 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일부 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누진 소득세 부과, 사회 복지 제도 실시 등을 제시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 자료 출처

- [가], [나]: 박선웅 외(2012), 『고등학교 사회·문화』, 137~141쪽.
- [다], [라]: 김영순 외(2012), 『고등학교 사회·문화』, 149~169쪽.

□ 평가 기준

- [가]와 [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의 자료를 의미 있게 해석하여 <A>국 또는 <B>국을 선택하였는지의 여부와 이를 논리화하는 능력을 평가함 (20점)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의 자료를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해석하여 <A>국 또는 <B>국 선택의 논거로 활용하면서 논리적으로 기술하였으면 20점
-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A>국 또는 <B>국 선택의 논거로 활용하였으나, [다]의 자료를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해석하지 못한 채 기술하였으면 15점
- [다]의 자료를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해석하여 <A>국 또는 <B>국 선택의 논거로 활용하였으나,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기술하였으면 15점
-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다]의 자료 또한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해석하지 못한 채 <A>국 또는 <B>국을 선택하였으나, 논리적으로 기술하였으면 10점
-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다]의 자료 또한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해석하지 못한 채 <A>국 또는 <B>국을 선택하였을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기술하지 못하였으면 5점

- [라]와 [마]의 논지를 이해하고 해당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20점)

◆ 채점 기준

- [라]에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특별한 기술과 훈련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며, [마]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지를 이해하고, 선택한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A>국은 연간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 <B>국은 적절하지 못한 보상 체계에 따른 필요 인력 부족 등)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A>국은 소득 불평등 완화 정책, <B>국은 보상 체계 강화 정책)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였으면 20점
- [라]와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하였으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만을 논리적으로 기술했으면 15점
- [라]와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두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했으면 15점
- [라]와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국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만 논리적으로 기술했으면 10점
- [라]와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국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두 논리적으로 기술하지 못하였으면 5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

[다]는 직업에 따른 연간 소득의 격차를 통해 [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따라 사회의 한정된 자원이 차별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나]의 기능론적 입장이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직업에 따른 소득의 격차가 존재해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에서 직업 간 연간 소득의 최대 격차가 <B>국은 1,200만원, <A>국은 4,600만원으로, <A>국은 <B>국의 3.83배에 해당할 정도로 직업 간의 소득 격차가 크다. 따라서 직업에 따른 소득 격차로 인해 자질과 능력에 따른 직업선택의 효율성이 높은 <A>국을 선택한다.

[라]는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A>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마]에서 강조하는 사회의 평등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A>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득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거나 저소득층인 단순 노무직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평등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예시 답안 2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이해는 제시문 [나]에서 보듯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다]의 <B>국은 <A>국에 비하여 직업 간 상대적 불평등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 [마]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B>국의 경우,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소득 상위 두 직업군과 85%를 차지하는 소득 하위 세 직업군의 단순 평균 소득은 717만원이다. 이는 3,033만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A>국의 23.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B>국의 사회적 불평등은 <A>국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소득 격차로 인하여 대다수 사람들이 직업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전문직을 회피하고, 단순 노무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전문직의 부족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개인에 대한 동기 부여가 약하고 전문직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전문직의 직업 교육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거나 소득 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훈·포장이나 명예 작위 등을 수여하여 사회적 존경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